

#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4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15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유럽대륙은 마녀사냥에 들떠 있었다. 교조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시대에 유럽 지성인들은 과학혁명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계몽의 시대를 살면서도 집단살육을 경험했던 20세기와 중세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16세기에는 특히 종교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책이 금서가 됐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금서가 돼서는 안 될 책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1542년 스위스 바젤에서는 《코란》을 압수한다든지, 1555년 교황 율리우스 3세는 모든 그리스도교도가 《탈무드》를 소유하거나, 읽거나, 인쇄하면 파문당할 것이라는 교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탈무드》를 빼앗았다.

영국에서는 1555년 가톨릭 여왕 '피의 메어리'가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마일즈 커버데일, 에라스무스, 틴들의 저작에 가톨릭 신앙을 거스르는 그릇된 교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는가 하면, 이탈리아에 새로운 종교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황 바울 3세가 1542년에 세운 종교재판소에서는 1559년부터 저 유명한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 목록에는 주로 교황권이나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책이 실려 있었는데, 장 칼뱅의 모든 저작과 히브리어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

## 13세기 초에 정식으로 종교 재판소 생겨

여기서 우리는 종교재판의 역사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중세 교황이 이단혐의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심문하고, 재판하는 사법기관으로 종교재판소를 설립할 때까지, 교회가 이단자에게 내리는 중요한 벌은 파문이었다. 그러나 12세기부터 이단자가 좀더 조직적인 형태로 가톨릭 교회에 도전하자, 체벌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던 교회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교황은 프랑스 남부의 알비파를 분쇄하기 위해 십자군을 일으키고, 그들을 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1231년 정식으로 종교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특히 도미니쿠스파가 신학적 혼란을 강도 높게 받고 세속적인 욕심이 없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의 임무를 맡게 했다. 15, 16세기의 종교재판은 이런 맥락에 닿아 있긴 해도, 다른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세의 종교재판소는 민중의 미신이 공공질서를 혼드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교회보다는 국가기관이 됐고, 16세기 교황이 세운 종교재판소는 대체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신학적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1478년 교황의 인준을 받아 설립됐다. 아라곤의 왕 페르디난도 5세와

카스티야의 여왕 이사벨라 1세는 '마라노'(Marrano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자 했다. '마라노'란 억압에 의해 할 수 없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무니만 그리스도교도'였기 때문에 국가의 통일을 추구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긴밀한 관찰대상이었다. 1502년부터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1520년대에는 프로테스탄트 혐의자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Tomas de Torquemada, 1420~1498)는 스페인 종교재판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든 인물이다. 도미니쿠스파에 들어간 뒤 세고비아의 산타 크루스 수도원장을 지낸 그는, 1474년 이후 이사벨라 1세와 페르디난도 5세의 고해신부가 됐다. 이같은 인연으로 그는 1483년 카스티야의 종교재판장이 돼 1478년에 설립된 종교재판소를 재조직했다. 1487년부터 교황의 인준을 받아 스페인 전역의 종교재판을 관할하면서 11년 동안 '마라노' '무어인' (이슬람교도), 이단자, 변절자를 찾아내는 가운데, 마법사, 마녀, 중혼자(重婚者), 고리대금업자까지 박해해, 거의 2000명을 화형에 처했다.

## 마녀사냥을 정당화한 문제작 《마녀의 망치》

1486년에 전통적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나왔다. 이 책은 《마녀의 망치》(Malleus maleficarum, 1486)로서 17세기까지 마녀사냥의 기본 지침서가 됐다. 마녀사냥은 특히 15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고통스러운 세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찾는 한 가지 방편으로 자행된 광기다. 1480년부터 1520년까지, 1580년부터 1670년까지 두 시기는 마녀사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앞 시기에는 종교재판소가 주축이 됐지만, 뒷 시기에는 세속재판소가 주축이 됐다. 아무튼 마녀사냥의 잔인함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는 《마녀의 망치》에 모두 나와 있었다.

마법과 관련된 죄악은 가장 미워해야 할 죄악이었다. 악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종교를 거스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리스도교도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악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녀의 망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 아닐 수 없다.

“고문으로 심문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옥사장은 고문도구를 갖춘 뒤 죄수의 옷을 벗긴다. 만일 여자 죄수라면 다른 여인이 벗기도록 한다. 옷을 벗기는 것은 그들이 악마의 가르침대로 마법을 써서 세례를 받지 못한 아기를 죽여서 준비한 것을 옷처럼 몸에 두르고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판사는 먼저 죄수에게 진실을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설득한다. 만일 그가 고백하지 않으면, 죄수를 매달도록 한다. 그리고는 한번 내려준 뒤 고백하라고 다시 설득한다. 만일 그가 순순히 고백한다면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만일 죄수가 진실을 만족할 정도로 불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으로 고문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판사는 아무 날 고문을 계속해 반드시 진실을 고백토록 해 기록에 남기겠노라고 죄수에게 일러준다. 그 사이, 판사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죄수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 더욱이, 이 사이 죄수를 혼자 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죄수에게 악마가 방문해 죄수가 자살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녀의 망치》의 일부만 봐도 점잖은 말투 뒤에 숨은 스산함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과부 노파(마법의 혐의자 절대다수가 여성이었다)가 잡혀가 고문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온몸에서 아프지 않은 점을 찾기 위해 바늘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마녀 혐의자가 판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죄를 시인한다 해도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 협조적인 마녀가 기대할 수 있는 은총은 불길에 넣기 전에 목매달려

**사회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과부 노파가 잡혀가 고문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온몸에서 아프지 않은 점을 찾기 위해 바늘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마녀 혐의자가 판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죄를 시인한다 해도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 협조적인 마녀가 기대할 수 있는 은총은 불길에 넣기 전에 목매달려 죽는 일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부인한다면 더더욱 고통만 더할 뿐이었다.**



마녀사냥은 15세기말부터 주도권을 세속재판소가 장악하면서 그 잔인함을 더해갔다. 사진은 종교재판 장면을 그린 A.베르케터의 그림.

죽는 일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부인한다면 더더욱 고통만 더할 뿐이었다.

#### 시대착오적인 광신의 시대

이것이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운행에 관한 새 이론을 내놓고,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가 계산을 통해서 그 이론을 뒷받침하면서 과학혁명의 기초를 다지고 있던 시대, 그리고 베살리우스가 우주의 축소판인 인체 내부에 대해 더욱 많은 지식을 축적하던 시대의 본모습일지 모른다. 사실, 새로운 기운이 르네상스를 낳고 있었다 해도, 아직 연금술과 그릇된 과학지식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의 모습은 20세기의 모습과 닮지 않았던가? 우리 자신도 대량살상의 시대를 살았으면서 16, 17세기 서양의 ‘광신’(계몽주의자는 가톨릭을 이렇게 비난했다)과 마녀사냥을 옛적 이야기로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다.

장 미셸 살망은 마녀사냥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농촌사회를 황폐화시키는 불행이 누적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심하게 멍들었을 때 나타나곤 했다고 말하면서 그 같은 사회현상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계속된 종교전쟁, 30년 전쟁, 프롱드의 난,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 때맞춰 닥친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 따위 여러 가지 불행은 16세기말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 마녀사냥과 같은 사회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형성했던 셈이다.”(《사탄과 약혼한 마녀》)

저명한 정치학자 장 보댕, 예수회 신부 마르틴 델 리오 같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의 지침서를 펴내면서 자신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거기에 과감히 저항한 사람도 있었다. 레지널드 스콧(1538경~1599)은 1584년에 《마법의 발견》(A Discovery of Witchcraft)을 발간해, 마법을 행했다고 박해를 하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이성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로마 교황에게 물었다. 물론 그의 책은 ‘나쁜 책’으로서, 1603년 제임스 1세가 즉위할 때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찾아내 불속에 던져 넣었다. 앙리 4세가 “유럽에서 가장 현명한 바보”라고 불렀던 제임스 1세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다.●